



산림학교에서 먼저 배우는 선생님들의 푸른 열정

(사)한그루녹색회는 지난 6월 3-4일 1박 2일 동안 푸른숲선도원 산림학교 교사 연수를 강원도 둔내 자연휴양림에서 실시했습니다. 푸른숲선도원 산림학교에서는 2007년 7월에 완공예정인 청소년녹색교육센터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번 교사연수는 공주대학교 이재영 교수님과 정병준 사무국장님이 도와주셨고, 숲 해설가 11명,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 18명, 한그루봉사단 7명 등 총 47명이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푸른숲선도원 산림학교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와 숲과의 관계를 알아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교토의정서에 관련된 탄소톤을 학생들에게 쉽게 알려 줄 수 있도록 푸른숲선도원 산림학교에서 사용될 탄소화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북부지방산림관리청 산하 영림단의 지원을 받아 간벌하는 모습을 보고 숲 가꾸기를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지치기 후 모은 나뭇가지와 잎들을 이용하여 생물들의 서식공간인 비오톱을 직접 만들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숲에서 배우고 숲에서 봉사하는 푸른숲선도원 뒤에 누구보다 자연과
 숲에 열정적이신 지도교사분들이 계셔서 매우 든든합니다.

올해 총5회에 걸쳐서 운영될 푸른숲선도원 산림학교에서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자연과 하나될 푸른숲선도원들의 모습을 그려봅니다.